

“국민과 함께하는 국민의 국방시대 열어야 ...”

- 제 34 대 천용택 국방장관 취임



이·취임식 후 서로 인사를 나누는 신임 천용택 국방장관과 전임 김동진 국방장관

국방 장관 이·취임식이 3월 4일 오전 육군회관에서 거행됐다.

천용택 장관은 취임사를 통해 “우리군은 국민과 더불어 ‘국민과 함께하는 국민의 국방시대’를 열어야 할 것”이라고 말하고 “확고한 전쟁억제태세를 강화하며 사기높고 사명감이 투철한 자랑스런 국군으로 다시 태어나자”고 강조하였다.

천 장관은 또 “IMF 사태를 빠른 시간에 극복하고자 낭비요인을 제거하여, 국방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지속적인 복지증진책을 마련하겠으며 교육훈련을 통해 강병을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의식과 발상의 대전환을 통해 국민으로부터 사랑받는 군대, 싸우면 이길 수 있는 군대, 항상 전쟁터에 있는 정신력으로 오직 북

쪽만을 바라보는 군대,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지 않는 효율적 군대, 21세기 전장환경에 부합된 민첩하고 과학화된 군대, 자긍심과 매력을 느끼며 신바람나는 군대, 전문가가 우대받는 군대를 국민과 함께 만들어가자”고 당부하였다.

신임 천용택 국방장관은 육사 16기 출신으로 ‘DJ 대통령만들기’에 결정적 기여를 한 국방전문가이다.

화려한 군경력으로 국방 및 안보분야에 해박한 식견을 가진 그는 '93년 합참 전략기획본부장을 끝으로 육군중장으로 예편한 뒤 곧바로 장관급인 비상기획위원장을 역임하였으며, 15대 국회 국방위원으로서 국방정책발전과 제도보완을 위해 탁월한 업적을 남겼고, 이번 대선에서는 DJ의 안보분야 핵심참모로 맹활

■ 프로필 ■

- 전남 완도
- 육사 16기
- 중앙대 경영학석사
- 서울대 최고경영자 과정 수료
- 합참 전략기획국 차장
- 육본 체계분석처장
- 사단장
- 군단장
- 합참 전략기획본부장
- 비상기획위원회 위원장 (장관급)
- 15대 국회의원

약을 하였다.

정책부서의 핵심요직을 두루 역임하여 전략 및 용병, 방위산업 분야 등 국방업무 전반에 두루 능한 군사전략가로 조직장악력은 물론 업무추진력이 뛰어나 그간 새정부의 국방장관 최적임자로서 주목을 받아왔다.

전쟁에 대비한 군사교리 발전에도 많은 연구업적으로 일가견을 가지고 있는 그는 군내에서도 신망이 매우 두터워 국방총수로서 큰 활약이 기대된다.

■ 취임사 (전문)

자랑스런 국군 장병, 군무원, 일반직 및 향토예비군, 그리고 이 자리를 빛내주신 내외귀빈 여러분!

저는 오늘 건국 50년만에 처음으로 국민의 힘에 의해 국민의 정부가 새롭게 탄생한 이 역사적 출발점에서 국방장관의 중책을 맡겨주신 대통령과 국민께 무한한 감사를 드리는 동시에 무거운 책임을 통감하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재임기간 동안 국가방위를 위해 심혈을 경주해 온 김동진 장관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전후방 각지에서, 바다에서, 하늘에서 이 순간도 쉬지 않고 국토방위에 헌신하고 계시는 국군장병 여러분의 노고를 치하하고 위로를 드립니다.

장병여러분!

21세기를 눈앞에 둔 세기의 전환점에서 세계 각국은 새로운 천년을 맞이할 준비에 여념이 없습니다. 그러나 한반도에서는 아직도 북한이 대남무력적화통일 전략을 버리지 않고 대규모 살상무기를 전방배치하는 등 남북한 간에는 군사적 대결 위협이 상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국내적으로는 IMF체제하의 경제위기에 직면하여 국민 모두가 미증유의 고통과 시련을 겪고 있으며, 이러한 경제위기는 국가안보에도 중대한 위협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대한 시기에 즈음하여 우리 군은 이 나라 민주주의 발전에 헌신하시고, 탁월한 능력과 경륜을 갖추신 김대중 대통령을 국군의 최고사령관으로 모시고 일사불란한 지휘체계를 확립하여 더욱 굳건한 안보태세를 확립하고, 국민의 사랑받는 군대로 새롭게 태어나야 할 시대적 소명을 안게 되었습니다.

먼저, 우리 군은 국민과 더불어 “국민과 함께하는 국민의 국방시대”를 열어야 하겠습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국민의 국방시대는 무엇보다 국민전체의 참여의식을 담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민의 참여의식을 고양시키고, 신뢰받는 국군상을 정립하기 위해서는 국방정책이 투명하게 집행되도록 하고, 국방의사결정에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방되어야 하며, 공정하고 투명성 있는 병무행

정 구현과 함께, 국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권익을 보호하여 민·군 일체감을 조성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둘째, 확고한 전쟁억제태세를 한층 강화하여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한·미 군사협력체제를 공고히 함은 물론 한·미 연합작전체제를 더욱 효율적으로 발전시키고 우리의 강력한 국방력을 바탕으로 고도의 전비태세를 갖추어 자주적 안보태세를 굳건히 확립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셋째, 사기높고 사명감이 투철한 자랑스런 국군으로 다시 태어나야 하겠습니다.

강한 군대의 육성을 위해서는 군의 사기양양과 사명감 고취가 선결과제입니다. 공평무사한 인사는 군의 사기양양과 단결의 핵심입니다. 군의 인사는 오직 전문성과 능력에 따라 공정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완비해야 할 것이며, 신상필벌을 명확히 하여 엄정한 기강이 확립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사기가 높고, 사명의식이 투철하고 기강이 확립된 군대만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여 우리들이 입고 있는 군복이 자랑과 긍지의 상징이 될 수 있도록 새롭게 태어나야 하겠습니다.

넷째, 국방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여야 합니다.

우리 군은 IMF사태를 빠른 시간안에 극복하고자 하는 국민적 열망에 적극 동참해야 합니다. 방위력 개선사업이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국방예산의 낭비요인을 제거하고 국방조직을 비롯한 제반 시스템을 정비하여 국방관리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전면적인 개혁작업이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다섯째, 지속적인 복지증진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IMF로 인해 국방 예산이 축소되어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복지정책이 장병뿐 아니라 군인가족 모두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관련정책을 발굴 개발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직업군인들의 전역후 복지증진에도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강병육성은 교육훈련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강한 군대는 사고없는 부대관리 속에서 양성되는 것이 아니라 반복되는 교육훈련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실전적 유·무형 전쟁 수행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교육훈련에 전념하는 지휘관과 훈련을 경시하는 지휘관은 그에 상응하는 평가를 받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자랑스런 국군장병 여러분!

우리는 새시대를 맞아 의식과 발상의 대전환을 통해 국민으로부터 사랑받는 군대, 싸우면 이길 수 있는 군대, 항상 전쟁터에 있는 정신력으로 오직 북쪽만을 바라보는 군대,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지 않는 효율적 군대, 21세기 전장환경에 부합된 민첩하고 과학화된 군대, 자긍심과 매력을 느끼며 신바람나는 군대, 전문가가 우대받는 군대를 만들어 국민과 함께 새로운 국군상을 정립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으며, 해야만 합니다. 저는 여러분을 믿으며, 여러분도 저를 믿고 우리 다 함께 “국민과 함께 국민의 국방시대”를 열어 가도록 합시다.

다시 한번 전임장관의 노고에 깊은 감사로 드리고 가정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지금 이 시각에도 국토방위에 헌신하고 있는 장병과 향토예비군 여러분의 무운을 빕니다.

감사합니다.

“참신한 변화 통해 낭비 없는 국방관리 실현”

- 제 29 대 안병길 국방차관 취임

신임

안병길 국방차관은 육사 19기로 방위력개선사업 및 무기구매에 해박한 식견과 경험을 갖고 있는 군 전력증강 분야의 전문가이다.

현역 시절 남다른 정책실무 능력을 인정받아 국방부 등의 주요 정책부서에서 다년간 근무했으며 특히 국방부 투자사업 조정관과 제2차관보를 역임, 까다로운 방산업무를 꿰뚫고 있어 방위력 개선사업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 프로필 ■

- 경남 밀양
- 육사 19기
- 동국대 행정대학원 수료
- 서울대 최고경영자과정 수료
- 국방부 투자사업조정관
- 국방부 제2차관보
- 한국방위산업진흥회 상근부회장

'98 방산학회 정기총회 및 특별강연회 열려



'98

한국방위산업학회 정기총회가 지난 2월 27일 캐피탈 호텔에서 학회 회원과 방산관련 산·학·연·관 관계자 9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어 '97 사업보고 및 수지 결산서와 '98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를 승인하였다.

'98년도 사업 목표를 『방위산업 구조 및 기술기반 조성 연구』에 두고 IMF시대의 위기 탈출과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새로운 정책 방향을 연구하여 방위산업 인식전환을 위한 대국민 홍보 활동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어 『경제 위기 극복과 방위산업의 새진로』를 주제로 열린 특별 강연에서 백영훈(한국산업개발연구원 원장) 방산학회 회장은 방위산업이 국가기간산업으로 재정립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방산기업 및 방산인 시상이 있었는데 방산기업 대상에는 경영관리 부문에 (주)풍산이, 연구개발부문에 LG정밀이, 국제 협력 부문에 (주)한벨헬리콥터가 수상하였다.

방산인 대상에는 LG전선 강문식 팀장과 통일중공업 이성두 과장이, 공로상은 방진회 김진철 대리가 수상하였다.